

현대오일뱅크, 대죽단지 고도화

서산 67만2528평방미터 산업단지 조성 ... 부산물 고부가화 추진

현대오일뱅크가 석유정제시설 증설을 위해 대죽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.

충남 서산시는 대산 소재 현대오일뱅크 일대 67만2528평방미터의 <현대 대죽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>을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7월10일 밝혔다.

현대오일뱅크는 대산 소재 공유수면에 2017년까지 3조2000억원을 투입해 산업시설 용지 61만4873평방미터와 녹지, 폐수종말처리시설, 공원, 주차장,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 5만7655평방미터를 조성하게 된다.

대죽일반산업단지는 현대오일뱅크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며 완공 후에는 코크스(Cokes), 연탄 및 석유정제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.

현대오일뱅크는 석유를 정제할 수 있는 공장용지를 확보하게 되며 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이완섭 서산시장은 “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상황에서 원유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며 “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서산시는 대죽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5000명의 고용창출, 1조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, 70억원의 지방세 수 징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현대 대죽일반산업단지는 2013년 12월 구체적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2014년 3월 착공해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7/10>